



안녕하세요. 저는 1994 년 입회하여 본당수녀와 농민사목, 병원사목, 생태사도직을 거쳐서 성소담당, 새터민(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그리고 지금은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영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저는 특별히 생명과 생태와 자연을 좋아하고 환경과 생태정의를 위한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가슴이 설레며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대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저의 수도여정을 살펴보니 참으로 다양한 사도직을 통해 생동감있고 활력있는 하느님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인 “광주인권평화재단”은 2010 년 5.18 광주민중항쟁 30 주년을 맞아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설립한 재단으로 인권프로그램 지원,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권교육프로그램, 평화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존재하는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정치적, 제도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2016 년 2 월말에 우리수도회의 결정에 따라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처음 이곳에 파견된 저는 생태정의를 실현되며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날마다 날마다 고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UN 이 정한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을 맞아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오찬”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아픔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그분들의 나눔에서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과 고통과 아픔에 처한 이들에 대해 예수님과 마더 씨튼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를 자주 생각한답니다. 구조적 폭력에 맞서서 부드러움과 쾌활로 대적하며 당당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셨을 마더씨튼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며 하루하루를 봉헌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의식화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연대가 이루어져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세상 지속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도직 현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음도 감사해야할 일의 하나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를 당신 선으로 이끄심에 감사하며..... 수녀님들,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Hello, Sisters! My name is **Sister Lee Jin Yong**. I entered our community in 1994. My past ministries are pastoral care at parishes, working for the farmers, hospital pastoral care, ecological works, vocation ministry, and Sae-Teo-Min Refugee Center (North Korea defectors). Now I am working at “Gwangju Human Rights Peace Foundation” of Gwangju archdiocese. I am interested in nature and ecology issues, so whenever I work for those issues, I am very happy and enlivened.

When I reflected on my religious journey, through my experiences of various ministries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meet God’s active presence in many ways. I am so grateful.

The ‘Gwangju Human Rights Peace Foundation’, where I am working was established in 2010 by the Archdiocese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or survey and helping support the programs of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This institution also has the aim to be in solidarity with the suffering, and respond to systemic and political oppression worldwide. In February 2016, the Korean province decided to mission a Sister to work there. And that’s me!! Since working as the first Sister of Charity of Seton Hill here, I am always thinking how I can contribute myself to realize ecological justice, and to make the world a place to respect life and human rights.



Last weekend I attended a special luncheon which was hosted by Gwangju City to celebrate the United Nations Day for Victims of Torture. Through listening to their sad and hopeful stories, I could experience something holy.

Often I think about what Jesus and Mother Seton might do and think for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and being tortured by poverty because of systemic contrasts which they cannot resist. By remembering and reminding myself of Mother Seton who met systemic violence with gentleness, cheerfulness, boldness, and wisdom, I also ask for wisdom from God every day.



Nowadays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re very critical issues. Many people of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raise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nd to make a sustainable environment by keeping solidarity to sustain and preserve God’s creation order from the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My ministry allows me to participate in advocacy for the world. How great it is!

With thanksgiving that God’s Providence will be with us and lead us to His goodness with hope and love in any circumstances, I wish you are blessed and happy.